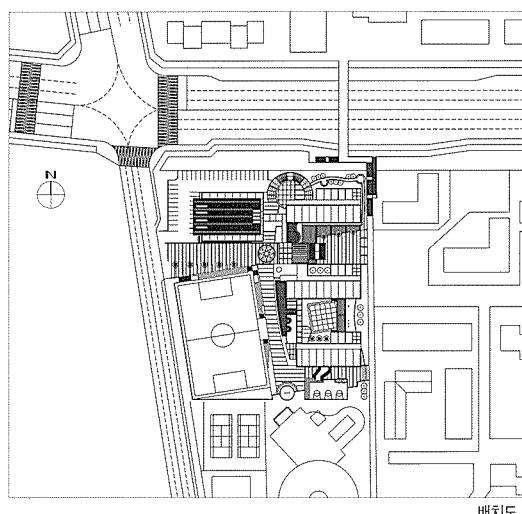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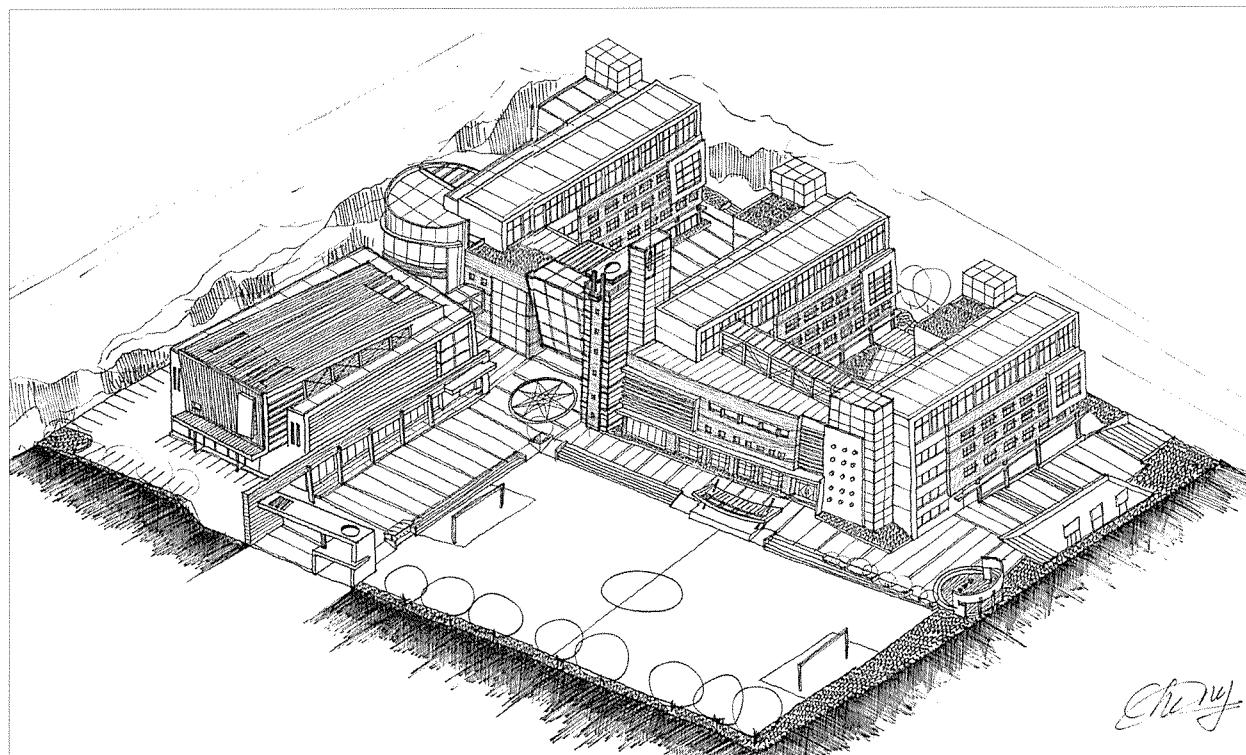


구봉고등학교 Gubong High School



프롤로그

2002년 2월, 폐나 쌀쌀했던 구봉고교 현상설계 발표날..... 아침부터 업무는 이미 마비상태였다. 사무실은 뿐연 담배연기와 무언지 모를 불안감으로 뒤범벅되어 있었고, 벨이 울릴 때마다 모든 시선이 그 전화기로 쏠렸다. 좌없는 관리직 여사원은 잔뜩 주눅이든 채 애꿎은 컴퓨터 키보드만 두드리고...

그러다 누군가 교육청 인터넷에 접속한 모양이다. 잠시 함성이 들렸고 사무실은 금방 아수라장이 되었다

우리가 당선된 것이었다!

연말과 구정연휴도 포기한 채 두번이나 이 프로젝트에 도전했고, 첫번째의 씹쓸한 결과로 잔뜩 긴장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당선소식은

김동 그 자체였다. 한번도 아니고 두 번 씩이나 같은 학교의 현상설계에 도전하여 첫 번째 현상현상에서 당선작없는 우수작으로 만족해야 했기에 재도전을 통한 당선은 당연히 남다를 수 밖에 없었다.

그 당시 신축되는 학교 건물 대부분은 7차 교육 과정에 입각한 교과교실형이었다. 교육시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전자식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필자는 직접 자료를 만들기로 하고, 학교를 선별하여 답사를 다니며 학생들과 교사들을 상대로 묻고 듣고 그 결과를 데이터하는 것으로 부족함을 메우며 계획안을 풀어나갔다.

그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자료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고, 그 교훈은 지난 2년여 동안 여러 건의 교육시설 현상설계에 당선될 수 있었던 강한 저력이 되었다.

2004년 3월, 구봉고등학교가 마침내 개교를 하였다. 현장을 둘러보며 계획에서 혹은 공사에서 미흡했던 부분과 좀 더 세심하게 다듬지 못한 부분들에 많은 아쉬움을 느끼며 구봉고등학교의 Concept과 계획과정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구봉고등학교의 현상설계와 배경

대전이라는 지역에서 건축 활동을 한지 얼마 되지 않던 시절, 필자에게 아주 적절하다고 느껴지는 프로젝트가 대전시 교육청

발주로 공고되었다. 바로 전에 동일한 고등학교 현상 설계를 끝내고 우수작 수상에 아쉬움을 많이 느끼던 터라 주저없이 두번째 공모에 참여하였다. 어수선한 연말분위기와 직원들의 투덜거림을 무시하고, 설연휴도 뒤로한 채 첫번째 계획안을 재분석,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배치계획을 풀어나갔다. 현상설계 경험이 많지 않은 시절이어서 그만큼의 부족함을 시간과 노력으로 극복하며 두달 여를 구봉고에 매달렸고, 구봉고 당선은 그런 노력 끝에 얻어진 결과인 것이다.

이를 계기로 교육시설 현상설계에 지속적으로 도전을 하였고 다행히 좋은 결과가 있어서 서울과 대전, 경기도에 몇 개의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돌이켜보니 구봉고등학교는 필자에게 교육시설의 처녀작인 셈이다.

Concept / 필로티 & 누하 진입 방식

구봉고등학교 부지는 다양한 대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부지와 인접한 어린이 공원과 테니스장, 고층아파트군, 소음방음벽, 육교와 연결된 3m 보행자도로, 전면 시설녹지 등...

이러한 복합적 대지조건을 해결하는 주요한 개념은 공간의 연속성(Sequence of space)이었다. 공간의 연속성이란 대지로의 자연스러운 접근을 유도하고 대지와 건물내, 외부의 다양한 동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필로티를 통한 전통건축의 누하진입방식을 고려하였는데 주된 의도는 경사진 대지의 레벨을 그대로 사용하여 성, 절토량을 최소화하는 것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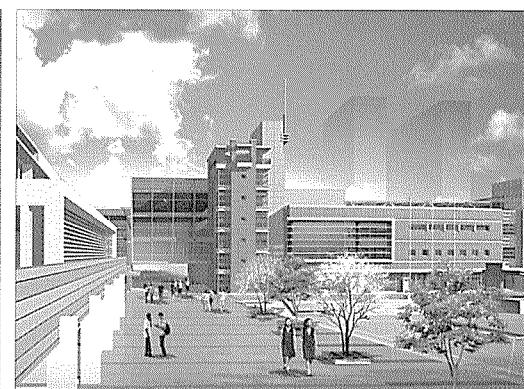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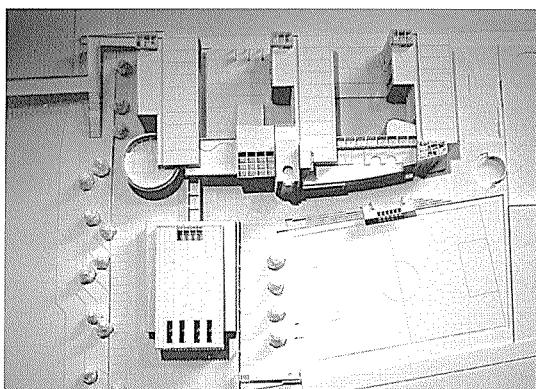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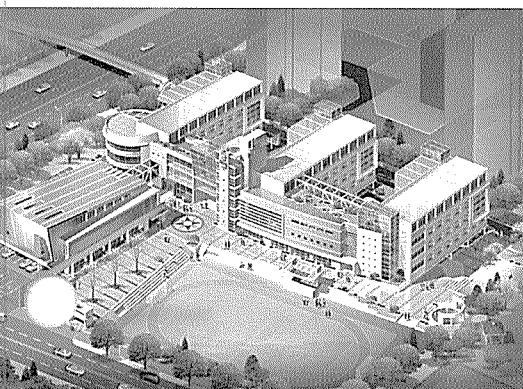
지형의 레벨을 그대로 활용하여 부진입구에서 주출입구까지의 경사를 계단과 마당을 통한 누하 진입방식으로 계획하고 교사동 하부에 필로티를 두어 부진입구와 운동장의 시각적, 공간적 연속성을 주었다.

Concept / MASS · 입면개념

아파트가 위치한 동측 부진입구에서 학교를 보면 5층으로 인식되지만 서측 주진입구에서는 3층의 건물로 나즈막하게 펼쳐져 도로에서 학교를 지나치는 사람들에게 아담하고 소박한 휴먼스케일의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구봉고등학교는 재정적 지원도 따랐던 프로젝트였다. 요즘은 설계 발주시 재정적인 문제로 교사동과 체육관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구봉고는 적절한 예산의 확보로 교사동과 체육관이 동시에 계획, 시공되어 현상설계시 계획의 의도를 그대로 현장에 반영할 수 있었다.

구봉고등학교의 입면개념이 교사동은 수평요소를 사용한 정적인 느낌을 강조하고



체육관은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동적 분위기를 강조하였기에 체육관이 추후 증축 공사로 진행될 경우 초기 입면개념이 상당히 외전될 상황이었다.

다행히 체육관은 지어졌고 경사로 끝에
뻗은 체육관 지붕에 아연도파널과 유공판을
사용하여 기본개념대로 모던하고 다이나믹
한 체육관의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다.

Concept / 배치개념

구봉고는 대지 내 4m의 단치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안이다. 아파트단지에 인접하여 교 실군을 클러스터형으로 배치하고 단치를 이

용하여 두 개 층 높이를 필로티로 띄웠다.
그래서 4m높은 반대편 운동장과 부진입구 공
간이 연속되게 하였으며, 주출입구에서 5층 규
모의 건물이 3층으로 인식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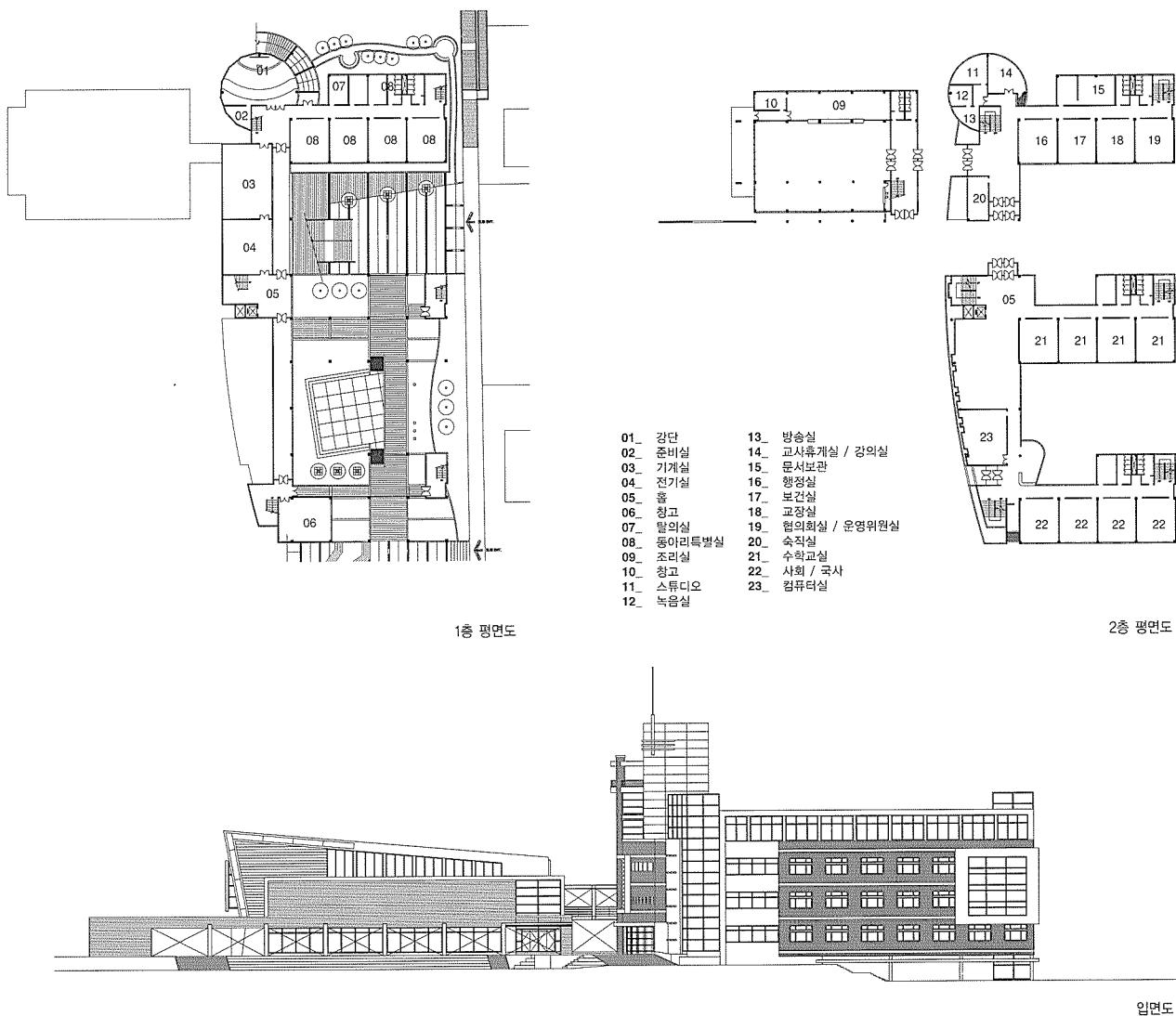
또한 지역주민 이용시설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여 아파트주변의 어린이공원, 테니스장과 연계하여 운동장을 배치하고, 지역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주, 부 출입구와 시설물을 배치하였다.

Concept / 평면개념

구봉고등학교는 계획 당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신축교사 교과과정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평면 구성방식을 보여주었다. 훼메이스와 도서정보센터를 교사동의 중심에 배치하여 각 영역별 교과군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휴게 및 정보 활용 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였다. 또 클러스터 형으로 교과교실을 배치하여 계열별, 층별 조닝을 명확하게 하고 이동 동선을 단축하였다.

그러나 현재 교육계현실이 7차 교육과정의 본래취지와 많은 차이가 있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년별로 분반이 되어 학습교실이 정해지고 특별교실은 특정시간에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주로 머물게 되는 홈베이스공간이 락커실이나 자습실정도로밖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



실은 필자를 많이 안타깝게 한다.

구봉고등학교 시공후기

구본고등학교는 운이 좋은 프로젝트였다
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한다.

처음 현상설계 당선작으로서 필자와 사무
실직원 모두 최선을 다했고 진취적인 해당
관청과 꼼꼼한 현장 소장 등이 잘 어우러져
호흡을 맞추었기에 초기 현상설계의 의도가
무리없이 시공 때까지 반영될 수 있었다.

처음 현상설계가 공고되었을 때, 기본계
획을 협의하고 실시도면을 제출하던 과정,
과정마다 '잘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수

없이 반복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필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구봉고
등학교는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이제 학교
로서의 외형적 틀을 갖추게 되었다.

기본계획 시 학생과 교사들의 입장에 서
서 공간을 분석하고 조닝하고자 많이 노력
하였고, 이제는 필자의 손을 떠나 그곳에서
생활하는 학생들과 교사들에 의해 의도했던,
아니면 미처 의도하지 못했던 다양한 행위
들로 채워질 것이다. 아울러 그들과 함께 구
봉고등학교는 유기체처럼 끊임없이 성장해
갈 것임을 믿는다.

끝으로 구봉고가 지어지기까지 많은 지원

과 고민을 아끼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께 진
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1155번지
지역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일반주거지역
용 도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고등학교)
대지면적	11,815.7m ²
건축면적	3,292.77m ²
조경면적	2,204.82m ²
건 폐 율	27.87%
용 적 률	99.77%
구 조	철근 콘크리트조 + 철골조 (체육관)
주차대수	50대 (법정 : 48대)
외부마감	컬러벽돌, 외단열시스템, 아연패널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